



Pierre Boulez:
Dérive (1984)

볼레즈는 논쟁적인 음악과 시대를 앞서가는 음악에 매료되었던 인물이다. 늘 뚜렷한 관점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볼레즈의 음악에 관한 탐구는 총렬음악, 전자음악, 통제된 우연음악 등 다양한 음악 사조의 발전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파생>이 작곡된 시기인 80년대 초는 그가 전자음악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IRCAM의 대표였던 그는 당시 라이브 전자음악을 활발히 창작했지만, <파생>은 그 흐름에서 살짝 벗어나 악기로만 연주되도록 작곡되었다. 이 곡은 지휘자 파울 자허에게 헌정된 곡으로, 파울 자허의 성을 딴 여섯 개의 음정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볼레즈는 자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곡 <메사제스키스>(Messagesquise, 1977)에서도 자허의 모티브를 사용했고 <응답송>(Répons, 1981-1984)에서도, <파생>에서도 같은 모티브를 사용했다. 볼레즈는 자허 모티브를 비롯해 “이 곡에 쓰인 몇몇 화음과 리듬이 나의 다른 작품들에서 왔기 때문”에 이 곡의 제목을 <파생>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자허 모티브는 곡의 첫 부분에 피아노로 연주되는 짧은 상행 음형으로 나타난다. 곡 전반에 걸쳐 매우 절제된 작은 움직임들이 상당히 명료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린다.

Boulez was interested in music ahead of the time and controversial music. His exploration of music, focusing always on a clear viewpoint, resulted in integral serialism, electronic music, and controlled chance music. When he composed *Dérive* in 1984, he was heavily devoting himself into electronic music. As a director of IRCAM, he actively wrote live electronic music, but *Dérive* somewhat deviated from that and called for instruments only. This piece was dedicated to conductor Paul Sacher. Its six notes were based on the last name of Sacher. Such instances can be seen in his other pieces as well, including *Messagesquise* (1977), which was written for Sacher's birthday, *Répons* (1981-1984) and *Dérive* (1984). In regards to tonight's work, Boulez explained, "Why did I call this work *Dérive*? Because *Dérive* means a 'deviation' ... a 'deviation' in this case on some chords and rhythms from another of my compositions." Boulez introduces the Sacher motif in the beginning by a short ascending figure in the piano.

Mick Roth: Woodland Heights

숲의 고도는 생태학에 관한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작업은 “종의 구성과 나무의 크기가 늘어나는 나이테와 함께 점차 다양해진다는 전제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늘어나는 나이와 더불어 추측 통계상의 과정이 구조적 복잡성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함이었다. 모델이 되는 숲의 성장지도는 약 720년 이상이 되었는데 갈라진 틈 숲의 작은 갈고리 부분은 생태학적인 시간으로 약 1년 정도와 맞먹는다. 일곱 부류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채취한 데이터가 음악적인 기호로 번역되었다: 최대 높이, 평균수명 및 재생산 주기. 이것들은 7개의 개별적 근본요소들로부터 나온 조화의 통계학적 분배를 표현하고 있는 바, 앞차례 요소와 함께 동기적 구조와 악보의 형식적 구조의 윤곽을 그리는 적응성을 형성한다. 이 악보는 “숲 속의 고도”라는 나무, 이른바 Greenhills Close, 홀리우드(Chorleywood), 월계수, 참나무, 자작나무, rowan, 그리고 야생사과 나무 등에게 헌정되었다.

Woodland Heights is a study of forest canopy ecology. More specifically, the work is an illustration of the premise that “species composition and tree size distributions become more diverse with increasing stand age” and that “with increasing age stochastic processes play increasingly important roles in creating structural complexity”. Mapping the growth of a model forest stand over a 720-year period, a crotchet in the score is equal to one year in ecological time. Data from the projected interaction of seven genera is translated into musical elements: maximal height, average lifespan and reproductive cycle. These form gestures expressing the statistical distribution of harmonics from seven individual fundamentals, with phyllotaxic elements shaping motivic structure and adaptive qualities delineating the formal architecture of the piece. This piece is dedicated to the trees of “Woodland Heights”, Greenhills Close, Chorleywood – to the laurel, oak, birch, rowan, beech, rowan... and the wild apple.

Nick Roth



로스는 색소폰 연주자이자 작곡가, 프로듀서, 교육자로 활동한다. 그의 작곡은 즉흥곡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전통음악에 대한 현대적 해석 위에 기술의 힘을 가미한 생태학적 미학을 제공한다. 발생, 주기, 그리고 구조에 매료된 그는 과학자, 연구소를 넘나들며 수리생물학, 생태학, 해양지질학, 수문학 등을 음악개념을 해석학적인 인식론으로 풀어낸 인물이다. 문학에 대해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을 접목한 그의 작곡세계는 시와 단어에 대한 공생적 반향을 소리와 이미지로 속아낸다. 타고난 호기심으로 현실과 이상세계 사이의 경계를 거부하는 그의 성향은 국제적인 연주가, 작곡가, 안무가, 예술감독, 비주얼 아티스트, 페스티벌, 시인과 앙상블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합작을 끌어내고 있다. Water Project의 설립 멤버인 유로드니(Yurodny)의 예술감독이자 새로운 음악을 주도하는 아일랜드의 독립회사인 디아트라이브 레코드사(Diatribic Records)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은 현대음악 센터(CMC)와 아일랜드 작곡가 협회(AIC)의 지원을 받고 있다.

Nick Roth is a saxophonist, composer, producer and educator. His work explores the liberation of improvisation from composition, the impact of biospherical form on technology and the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music. A fascination with emergence, cycle and structure has led to conversations with scientists and research institutions across the interweaving disciplines of mathematical biology, forest canopy ecology, marine geology and hydrology in search of a conception of music as translative epistemology. Simultaneously subsumed by an insatiable appetite for literature, his compositions often explore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poetry and the symbiotic resonance of words as sound and image. A curious predisposition and a steadfast refusal to accept the existence of boundaries between the real and the imaginary has led to collaborations with an array of international performers, composers, choreographers, directors, visual artists, festivals, poets and ensembles. Nick is artistic director of Yurodny, a founding member of the Water Project and a partner at Diatribic Records, Ireland's leading independent record label for new music. His work is represented by the Contemporary Music Centre (CMC) and the Association of Irish Composers (AIC).